

종합·해설

# 이명박 '以朴制昌' 쉽지 않네

〈박근혜와 연대해 이회창 제압〉

### 朴 "李후보 만날 이유 없다" 면담 제의 거부

### 이재오 사과에 냉담... 이 최고 거취도 고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가 사실상 출마의사를 굳힌 데다 '백의중군'을 선언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좀처럼 '원군'이 되어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는 것. 박 전 대표의 협조를 등에 업고 보수진영의 표심을 한나라당 쪽으로 결집시킴으로써 이 전 총재를 주저앉히겠다는 이른바 '이박제창(以朴制昌)' 전략이 암초에 걸린 셈이다. 박 전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후보와)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면담 제의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이 "아직도 경선중인 걸로 착각하는 세력이 당내에 있다. 이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하면서 양측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서울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언론 인터뷰

와 공개 회의석상 등을 통해 모두 7차례나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만 '사과'라는 말을 8번 언급하며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 최고위원은 "그 동안 저의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거나 화가 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박 전 대표께서 '오만의 극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생각하기에 따라 오만이구나 그걸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 박근혜 측 인사들은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있으며, 박 전 대표도 이날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이 최고위원이 찾아와 사의를 표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을 때에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5일 낮 김기춘 의원 생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 입장을 공식 표명한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날 낮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자는 "이재오 최고위원 사퇴는 물론이고 이회창 사무총장 역시 사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선 이 후보측의 경선 이후 행보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김무성 최고위원의 '화합' 행보에 대해서도 "똑바로 하라"는 등 직설적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갑 의원은 "김무성 의원, 최고

위원이 됐다고 끝인 줄 아니냐"면서 "이 최고위원 문제는 음침마속의 심정으로 잘라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기본이고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 후보측 고문단에서도 박 전 대표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鄭 "2011년 대입 전면 폐지"

### "교권회복 지원하되 교원평가제는 필수적"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5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3이 되는 2011년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을 졸업자시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한국산업기술포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가 늘어나는 행복복합 대학-대입 폐지, 입학에서 진학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한국교육 개혁의 모든 문제는 대학입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학입시를 사실상 폐지하고 선진국형 선발제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능을 고교졸업자시험으로 전환하고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이 1년에 2차례 이상 3~5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기회를 주겠다"며 "고교졸업자시험은 개인별 학력평가 방식이 아니라 합격·불합격 등 통과여부만을 따지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대학은 학교생활부에 기록된 학업성적(내신)과 개성·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을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고 논술 등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입시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교사들이 교권약화를 개탄하는데 학생에 대한 실질적 평가 권한을 줌으로써 교권을 회복하겠다"며 "다만 교사들의 능력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교원평가제는 필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 '뱅크 스쿨' 설치 등을 통한 '영어 국가 책임제' 실시 ▲대학 입시 영어를 듣기와 해석 위주에서 '말하기' 위주로 변경 등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 분야별 세계 5위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 방안도 내놔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금액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현재 GDP(국내 총생산) 대비 4.3%(30조원) 수준의 교육예산을 2012년 6% 수준인 70조원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광주·전남지부 채경근 회장 등 임원 7명은 5일 광주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사모가 이 전 총재 출마 반대를 주장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李 집권후 신당 추진' 발언 논란

### 이재오 "그런말 한적 없어"

### 차측 "기대 저버린 해당행위"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선후보의 외곽지지 모임에서 집권 이후 신당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5일 불출 나오면서 당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일보에 이 최고위원이 최근 이 후보의 외곽지지 모임에서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집권 이후 신당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달 26~27일 충남에서 열린 '2007 국민승리연합' 중앙위원

워크숍에서 이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이 과거 정치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많은 국민에게 '꼰통수구'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이 단체 회원들이 전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전 대표측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최고위원이 발언 당사자로 돼 있고, 내용 또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유지를 둘러싸고 형성돼온 당내 친이(親李·친 이명박계), 친박(親朴·친 박근혜계) 계파간 미묘한 갈등 기류가 급속히 확산될 수도 있는 위발성 있는 소재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즉각 "한 마디로 근거 없는 얘기고, 사실무

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 일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 적은 절대 없다"면서 "당이 집권해 국민적 기반을 넓히려면 국민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지만, (신당 창당과 같은) 그런 식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측에서는 이 최고위원을 향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과 같은 발상이다. 한나라당 정권교체를 원하는 모든 당원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연합뉴스

# BBK 주가조작 혐의 신당, 李후보 고발

대통합민주신당은 5일 BBK의 후신인 읍서빌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외외연인 MAF 등의 법인체와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읍서빌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번 고발의 근거는 이 후보가 미국 법원에 6차례에 걸쳐 제출한 소장과 첨부서류"라며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은 법률상 다툴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이회창 대선출마 말라"

### 광주·전남 박사모, 전국 지부중 첫 반대 회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광주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 전 총재의 출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특히 이 전 총재의 출마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광주·전남지부가 전국 지부중 처음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박사모 광주·전남지부 채경근 회장 등 임원 7명은 이날 한나라당 광주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는 사실상 경선 불복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격"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불출마와 우곡제책의 대응단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사모는 이어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은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승복과 정권교체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이명박 후보 중심으로 좌파정권 종식과 적극 동참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이명박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광주·전남 당원 200여명도 이날 오전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 전 총재가 이번 대선에 나오게 되면 10년 동안 당원들이 한결같이 바라던 정권교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정권과 여당이 그토록 바라던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당직자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총재를 따르던 한나라당 당원들이 지난 10년간 두 번씩 죽어왔으니가 세 번째 죽어보라는 것이냐"며 이 전 총재의 출마를 '한국정당사에 전례 없는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220-0524  
FAX:227-9500  
분실  
골프회원권 No.110070  
아크로코트리클럽 이석래  
상기 회원권을 분실공고함.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영길(851222-16588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 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권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나1214  
공고인:김재훈  
한정승인수리일:2007.11.2  
공고기간:2007.11.6~2008.1.5  
연락처:광주 동구 용산동 147-1 호리맨션 101 김재훈(☎010-6400-1248)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정적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칼레오 필름난방은 정말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기파 인입이 없습니다.  
타이틀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기파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TEL. (062)262-0101

**금당부동산**  
☎ 223-7400 ☎ 016-632-5659  
(주최:충정로 57-47번 코너 2층)  
투자  
-우주개발지구, 교통로 병목에 주가지역 2300평 7천만원  
-시흥, 권역주책지, 남영동본소부근, 그 단면적 1640평 주택 2채, 2억  
-나주시, 불행 혁신도시 부근 주택 2채, 대지 3900평 5400만원  
-다대포지구 신수영역의 대지 1980평 7세대로가게 2채 2억6천 정도 3억3천  
매도·교환  
-순안동 백산 아파트 48평 내외 8월 입주, 계약금 2,500만원 납입했고, 잔금 6천만원 대에서 교환할 때도 3억3천  
-곡성읍 서거리 광주시 20년 빌딩관련 주택 483평 7500만원 교환가  
-금호동 5가 4층건물 대지 14 건평 44 전세 4400만원 3650만원 대지 3500평  
-담양군 주월산 별장용가게 대지 371 건평 100 은평 1억 교환가 2944천  
-전대포구 대지 60 건평 120 입부는 공실 전세 8500만원 월 230 매도 5억3천  
감정기이하  
-순안동 불행동 소재 최고상권 대지 200 건평 42 평 1000이상 매도 7억  
-송동 4가 3층건물 대지 350 평 1억 8천 907평 대지 3846평  
-안동 신가-동명동-이원 대지 139 건평 458 평 11억 정도 매도 6억3천

**금매**  
태양광 발전소 및 연수원 예정부지  
●전남 보성군 화천면 영천리  
●관리지역 임야 85,950㎡  
●분할가능, 정남향  
●전력380kw 설치됨  
●매매가는 상담후 결정  
연락처  
062)236-0764  
010-6889-7100

**산행안내**  
11월 7일(수)  
▲광주이대로산악회 내장산, 백악산 11월 7일(수) 08시 동아병원(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다음코스:이대로산악회 T.011-609-0588  
▲청곡산악회 준비 김재준 교관산 11월 7일(수) 08시 광주교원공제회관 앞 출발 T.010-6660-5665  
▲광주아리산악회 고흥 팔영산 11월 7일(수) 08시 30년 블랙야크 신청서 출발 ※다음코스:광주아리산악회 T.062-681-1511, 011 9620 9821  
11월 8일(목)  
▲광곡산악회 추령고개-장곡봉-추산봉 내장산코스 11월 8일

11월 11일(일)  
▲광주하남산악회 회춘산 봉주산행 11월 11일(일) 08시 광곡역 출발 http://cafe.daum.net/znsgil T.222-3253, 010-762-9-0559  
▲광주토요산악회 구례 성삼산-파아골 11월 10일(토) 08시 광곡역 http://cafe.daum.net/gwarkjzsoy T.011-608-4267, 011-634-2044  
11월 11일(일)  
▲한울산악회 경음 내장산 11월 11일(일) 07시 30년 국제호텔 건너편 광곡역에서 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네이버카페:한울산악회(이영, 김홍 가일) T.011-645-3371, 011-635-9829  
▲대한산악연맹광주광역시클럽 해남 부분은 11월 11일(일) 07시 하남하이마트에서 광곡역에서 연례레크레아시온출발 T.010-9445-9844

11월 11일(일)  
▲요산회 지리산 남부능선 11월 11일(일) 07시 30년 광곡역 출발 T.016-611-1509  
▲광주비둘기산악회 추봉 주위구산산 11월 11일(일) 08시 광곡역 출발 ※다음코스:광주비둘기 T.011 640 0872  
▲광주남부산악회 대장산일행 11월 11일(일) 08시 방림지구대 앞 출발 ※다음코스:광곡역 출발 T.011-609-3172, 016-609-0659  
▲광주메이리산악회 지리산 중산반 회화봉 대천사 11월 11일(일) 07시 지리산(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clkw T.011-601-2894  
▲삼각산악회 주봉 대장사-백암사 11월 11일(일) 07시 운주4거리(영봉시장)광곡역경유 08시 88레디스중앙출발 ※에어비로드 T.017-601-7633

11월 11일(일)  
▲순안동산악회 지리산 노년구파아길 11월 11일(일) 08시 광곡역출발 ※다음코스:광곡역출발 T.011-608-7627, 011-605-5034  
▲광주일포산악회 전북 구산시 신사도 대장산 율림봉 등정산행(야간등반)코스 11월 11일(일) 08시 파인공중정원농플러스경유출발 T.267-5307, 010-4616-1460  
▲산회회향변산 우금산-삼예산 11월 11일(일) 08시 광곡역출발 ※다음코스:파인공중정원농플러스출발 T.011-619-4699, 010-7677-3253  
▲광주산악회 대구 평강산 파계봉 등정산행 11월 11일(일) 07시 30년 대인공중정원농플러스경유출발 T.019-499-1405, 011-9608-3357  
11월 13일(화)  
▲광곡산악회 구주 적상산 11월 13일(화) 07시 40년 광곡역출발 T.011-620-3002